

#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신안군, ‘탄소중립’ 중심지로 우뚝



## 박우량 군수, 추진위 발대식 사례 발표 호응 전남 서남권 제2 경제발전 도약 초석 기대

신안군은 5일 박우량 군수가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에서 풍력발전분야의 모범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

단 발대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박 군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2050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주민참여에 달려 있고, 그 중심에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이 자리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유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이익 독점 방식을 탈피하고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발전 완료시 연간 3000여 억원의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금액은 신안군민 1인당 연간 600만원에 해당한다.

신안 8.2GW 해상풍력은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 48.7GW의 16%에 해당한다.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사업이며, 전남 서남권 제2의 경제발전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2GW 해상풍력은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상시일자리 4000개 포함 직간접일자리 11만7000개 등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원인 태양광과 바람 등을 이용한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군, 전국 최초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 개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다양한 맨손어업 기술·낙지어구 전시



무안군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무안낙지 맨손어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2일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을 전

국 최초로 개관했다고 밝혔다.

맨손어업 유산관은 해저면에 위치한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생태갯벌과학관 1층에 150㎡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손에 손잡고 함께 이어가는 갯벌낙지 맨손어업'이라는 주제로 맨손으로 낙지 잡는 방법과 낙지 어로 도구를 비치하여 갯벌에서 낙지잡는 어업인의 생활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물로는 가래낙지(일반 삼보다 작고 끝이 뾰족한 삼으로 잡는 법), 팔낙지(도구 없이 맨손으로 잡는 법), 햇불낙지 등 다양한 맨손어업 기술과 낙

지어구를 전시하고 팔낙지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문객들은 2020년에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생태갯벌과학관에서 스마트빌리지, 디지털수족관 등 여러 가지 실감형 콘텐츠와 미술융합, 김굽기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 촉각의 해양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의 갯벌은 전국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곳에서 채취한 무안세발낙지는 풍부한 영양과 부드러운 육질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안 황토갯벌랜드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 자원회수(소각)시설 시민토론회 각계각층 참여...주요사항 질의·응답 시, 조례 제정시 민간업체 운영·상설 모니터링 제도화 반영

'목포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지난 4일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김오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용칠 교수는 "염려하는 다이옥신 이후부터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논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법정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져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소각)시설은 현재 매립장이 98%포화

상태로 하루 약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한 상태임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로 오해가 해소됐고, 주민설명회와 필요시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의회회는 업무보고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소통해왔으며 입지예정지 주민과는 민간재안서가 접수되면서부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안된 민간업체의 운영과 다이옥신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소각시설 운영 조례 제정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각장 인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장, 전시실을 구축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영암군은 금년 6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43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영암군은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거쳐,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상과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안전점검 실시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오는 12일부터 의무화...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먼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 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